

금년 1월 1일부터 국영철도가 공영철도로 바뀌면서 철도공사가 창립되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의 창립을 축하하는 바이다.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인 경인선이 개통된 지 106년이 지나서야 국영철도에서 공영철도로 바뀐 셈이다.

공사는 정부의 기업형 경영체제로 발전적 조직으로 본다. 그래서 국민이 갖는 기대도 크다. 또한 기대가 큰 만큼 비판도 따를 것이다. 그래서 공사로 전환하지 며칠 되지 않아 KTX의 빈번한 연착과 고장문제, 새로이 변경되는 규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겪는 등 언론과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개인이나 조직이 비판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에 무감각하거나, 비판을 고의로 무시해 버리면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문제는 철도공사의 사고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철도공사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철저히 '고객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철도공사가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지금과 같은 안일한 운영과 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인간의 모든 조직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다수



불자 세상보기

신준식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KTX, 서비스는 '완행열차'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판이 많은 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 주어지던 할인요금혜택을 없애버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70-80년대의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세계사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정체된 상태, 아니 그보다 못한 상태에서 국민 다수가 더욱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학생만을 한정해 보더라도,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학생, 학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지 않나. 우리의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에서 학원으로 또한 학원에서 학교로 오가면서 휴사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에 실망한 나머지 조기 유학생이 자꾸만 늘고 유학생에게 송금하는 돈이 1년에 약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라니 놀랄 일이 아닌가. 유학이 직·간접 원인이 되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고, 병역이 문제가 되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진정 우리의 학생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제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 요금할인제도만 해도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부분적 복지이고 나라 발전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제도로 바뀌면서 복지차원의 혜택을 더하지는 못할 망정 주어지던 혜택을 빼앗기는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요금제도에 개선이 있으면 한다. 공사가 됨으로 해서 직무 영역에 많은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수단의 중요 목표는 합리적인 요금 하에서 편리와 쾌적한 탑승 그리고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철도공사도 국영기업인 이상 이익을 많이 올리면 좋은 것이다. 특히 공사로 바뀌면서 5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갖는 입장에서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철도교통의 기본적인 중요 기능을 위해 소홀히 될 만큼, 또한 철도공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 될 만큼 수익사업에 욕심을 내어서는 아니 된다. 철도교통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게 되고, 이용자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합쳐질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되면 진정한 공사의 발전은 따라 오기 마련이다.

불자의 눈

최근 큰스님들의 줄이든 입적과 맞물려 지나치게 의형적이고 대형화된 스님들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교단 내외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거액의 돈을 들이고 수많은 인파를 동원하는 것이 마치 입적한 스님의 위상과 법력을 보여주는 것인양 여기는 풍토는 공수래공수거를 강조하는 불가의 진면목과는 사뭇 거리가 먼 것이어서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또한 이같은 다비식 등의 행사에 참석한 많은 스님들에게 일일이 여비를 나눠주는 관행은 그 액수가 만만치 않아 어느 절에서는 빚을 내어 행사를 치렀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해당 사찰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사찰에 찾아와 과도한 여비를 요구하거나 전문적으로 여비를 타러 다니는 신원 불명의 승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종단 일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간소한 사찰행사' 환영한다

지난 1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분사주지회의에서는 스님들의 영결식과 다비식, 또는 진산식 등의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객스님들에게 여비를 나눠주는 관행도 없애자고 결의를 했다고 한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러한 결의가 자칫 교구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웅색한 아이디어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

진실로 검소하고 배금주의에 물들지 않는 승가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은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때에 행사차원이든 개인차원이든 승가의 과소비적 행태와 허례허식은 반불교적일 뿐만 아니라 세간의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행히 분사주지스님들 뿐만 아니라 원로회의와 중앙총회에서도 여기에 동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종단의 통합적 결의로 보여져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전국구비니회에서 부고기 부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도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스님도 허례허식과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근절되도록 적절한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더니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검약과 무소유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도수(영남대 학생회장)

이렇게 들었다

잘못된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 잘못된 일은 결국 고통을 불러 온다. 그러나 옳은 일은 사양하지 말라. 그 옳은 일은 결코 고통을 불러오지 않는다. <법구경>

최근 MBC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신강군의 사실은...' 팀 3명이 (주)태영으로부터 고가의 핸드백을 받았다 둘러쳐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프로그램은 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관계자들도 대거 '책임' 문제에 휩싸이게 됐다.

'사실은...'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동안 언론, 특히 거대 신문사들의 보도 행태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아왔다. 흔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그 자신에게 더 큰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는 말을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대중은 당연하게 '사실은...' 보도팀에 높은 도덕성을 기대했지만 관련자들은 이번이 그 기대를 무너뜨렸다. 사실 각 언론사의 보도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팀 쪽의 과실만이 제기되고 원인제공자인 (주)태영은 아예 보도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점은 특히 그렇다.

그러나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둘러줬다'는 행위도 '받았다'는 행위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법구경>에서는 '잘못된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이른다. 처음부터 그 핸드백을 받지 않았다면 관련자 징계, 프로그램 폐지, 시청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그 잘못된 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순간적인 욕망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힘들다. 그러나 보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도덕성이 갖춰지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김강진(현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템플스테이, 다시 생각해보자

몇 해 전부터 시작된 템플스테이가 일 반에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관광개발 및 육성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는 관광산업 개발론자의 머리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템플스테이의 기본개념은 어디까지나 관광이었다. 즉,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체험 관광에 불과하다.

사찰은 관광도량이 아니라 수행도량이다. 하루 이들의 체험으로 그들이 불교인이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헛된 욕심이다. 템플스테이로 인해 수행자들의 일과가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가. 템플스테이라는 관광 가치에 맞추기 위해 사찰의 목적이나 환경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2004년도에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5억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지원했고, 총무원은 이를 강원도 낙산사를 비롯해 전국의 38개 사찰에 배분했다.

그런데, 지원금은 거의가 수세식 화장실 개선, 샤워시설, 숙박시설 개선에 투입되었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불교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반(反)하는 사업들이다.

특히 템플스테이로 인한 사찰 환경의 변질은 이미 우려 수준에 있다. 우려되는 변질 가운데 하나가 물 환경이다.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모두 물을 엄청 소

비하는 쓰는 서구식 생활양식이다.

산중 사찰의 물 환경을 보면,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수량은 매우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은 수세식화장실과 샤워시설에 물을 얻기 위해 부득이 사찰에서는 지하수를 팔 수밖에 없다.

지하수를 많이 쓰면 사찰 주변 계곡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물이 고갈되면 주변 식생에 영향을 주고, 식생의 파괴는 곤충과 조류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온다. 템플스테이, '무조건 NO'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쯤 해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깊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타인의 아픔' 악용하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한 일이 있다. 다른 아닌 지진해일 피해로 상처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남이 아픔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어느 목사의 설교 내용이었다.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것인가. 크리스천들이 다수 학살당한 곳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곳에 있었을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왜 같이 벌을 받아야 했나. 상식이 없는 것이다.

또 유립인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땅이 가는 태국 푸켓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간다는 열토당도 많은

많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했다. 원통을 맞으면 오른팔을 내놓으라는 예수의 사랑을 기억했다면 상처이고 신음하는 남아시아에서 이런 비수를 퍼뜨리는 언동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기 위해 타인을 상처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종교인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의지처가 되어야 할 종교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자세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임영희(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 지울 스님

지난해 100일이 넘도록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단식을 감행한 지울 스님이 다시 70일이 넘도록 단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이 저리다.

몸은 거의 죽은 상태라고 담담히 말하면서도 천성산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시는 스님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저리도 처절하게 매달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부디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으면, 아직도 멀리 떨어져 평행선을 그리고 있을 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의견 차이를 조금씩 좁혀 해결점을 빨리 찾아내 더 이상 스님이 단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광수(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연대' 민영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예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수사 사부대중일동 부설)운수불교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TEL 051)317-5671

부산여성불자회 이영숙, 박성민, 백명숙 회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복, 홍말연, 김현숙 총무 류경자, 하영조 재무 김지연, 박정연 감사 이정원, 이소연 교화 이복선, 이은지, 박각연 운영 인정숙, 김경자, 서화영 봉사 박영숙, 김경희, 박순천 정취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 1동 393-12(불교회관 5층) TEL 051)854-4166 / FAX 051)867-8048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정사 주지·관장 정려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사회복지법인 내원 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반아원 ☎(055)682-1854 부산사하자활후견기관 ☎(051)263-6697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합치골 청소년수련관 ☎(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055)932-5662 중구문화의집 ☎(051)247-8425 ●석암장학회 ☎(051)243-0692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 TEL 051)242-0691 FAX 051)248-0691

수진스님 "선으로 본 금강경" 대강좌

불교TV 화엄경 강좌에서 정통 강백 선강을 들려주셨던 전 해인사 강주 수진스님이 부다피아와 함께 "선으로 본 금강경"을 총 24회에 걸쳐 강의합니다

- 장 소 :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3-56번지 해인정사 대적광전
일 시 : 매월 초하루, 보름 오전 10시
연락처 : 051)291-1176
수진스님의 강의는 불교 포털 사이트 부다피아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